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6월 27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반도체바이오과	담당자 • 바이오산업팀장 박혜란 • 담당자 김영철 백상흠	☎440-3101 ☎440-4297 ☎440-310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중심, 남동국가산단과 영종 지역 연결 -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목표 -

인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3개 산업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 결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와 추진전략 발표 심의를 거쳐 인천-시흥 컨소시엄 등 총 5개 지자체를 특화단지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영종도 유보지를 신규 투자지역으로, 남동공단을 바이오 소부장 핵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대가 위치한 인근 배곧경제자유구역 등 시흥시와 광역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기반시설(인프라)을 보유한 서울대 및 향후 지어질 서울대병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동안 바이오 앵커기업들을 포함한 송도지역의 고질적 민원이었던 전력공급 이슈를 단숨에 해결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바이오 앵커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규모의 바이오 제약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한 인천이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통해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확보,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지원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 첨단산업 기술력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룰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에 힘입어 인천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게 됐고,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인천시민들께 감사 드린다”며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는 국가 바이오산업의 혁신

을 이끌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 도약의 주축이 될 것이며,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과 함께 강소기업의 발굴·육성 및 해외 우수 기업 유치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것” 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참고 사진 <잠정>



☐ 목 표

- 각 지역별 특화된 육성거점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밸류체인 강화

☐ 지역별 조성방안

○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

- 110만 평 부지 내 글로벌 진출 거점 첨단산업단지 조성
- 산업·주거·근로자복지시설이 포함된 정주 친화적 복합단지 조성

○ 송도경제자유구역

- 기존 앵커기업 및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 연계, 바이오R&D 및 인력양성 거점으로 육성
- 산·학·연·병·관 네트워크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 공동 R&D 등을 통한 첨단R&D 활성화
-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K-NIBRT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연간 4천 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

○ 남동국가산업단지

- 소부장 기업들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